10년 전보다 사찰 4590곳 감소…“대책 마련 필요” 공감

종단협, 회원종단 29개 현황 조사
10년 전보다 사찰 31.4% 감소
승려 · 정사는 39.11% 감소 파악
행정 구축 · 종도 관리 강화 시급
무창포 모세상 설치 저지 연대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종단 29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찰과 승려(정사) 수가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에 비해 사찰수는 4590곳이 감소(-31.4%)했으며, 승려(정사)수는 1만 3734명 감소(-39.11%)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이하 종단협)는 3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이사회 및 제6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단협은 2024년 1차 회의에서 결의해 추진한 회원종단 현황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이후 10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료조사와 심의 및 실사방문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조사결과 2014년 이후 2024년 기준 29개 회원종단은 사찰수, 등기사찰, 승려수에 있어 큰 감소를 보였다. 사찰 수는 2014년 1만 4742개에서 2024년 1만 152개로 4590곳 감소했고, 등기사찰은 2014년 3496개에서 2024년 3451개로 45곳 감소했다. 승려(정사)수는 2014년 3만 5117명에서 2024년 2만 1383명으로 1만 3734명 감소했다.

위원회는 감소의 주요 사유로 고령으로 인한 입적, 분담금 장기미납, 활동부재로 인한 종단별 재 정비와 공찰 감소, 입적에 따른 유족과의 문제 등을 꼽았다.

위원회는 종단 총무원 행정조직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내놨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3월 20일 ‘제1차 이사회 및 제6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현황조사 결과 회원 종단의 약 1/2정도가 총무원 기능과 실무 인력 운영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디어 시대에 기본조건인 종단 홈페이지 운영 또한 약 20개 미만 종단 만이 운영 중”이라면서 “총무원은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행정기능 구축으로 종단 발전과 종도 관리를 강화해야하며, 이를 위해 회원종단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찰 관련 정과규정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관규정 중 ‘시행세칙 제2조 회원의 자격’에는 회원종단 사찰수 30곳 이상 승려(정사) 5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소속명의 등기사찰 3곳 이상 조건은 11개 종단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2013년도까지는 협회 정관에 구체적인 가입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기준 논란이 있으니 현 회원종단은 소급 적용하고 신규가입 종단에 대해 현행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미충족 종단은 협회 정관규정을 준수토록 유예기간을 둬 충족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화종은 이사종단에서 상임이사 종단으로 승격됐다. 세칙 제3조 임원선출에 다르면 상임이사는 25명 이내로 하며, 회장종단 2인, 부회장종단의 이사 각 1인과 이사종단에서 이사 20인 이내로 한다. 이사종단 중 상임이사를 희망하는 종단은 특별분담금을 납부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는 9월 15일부터 4박 5일간 몽골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보령시 모세상 조형물 설치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도 있었다.

무창포 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조형물 설치 사업은 2023년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조형물은 긴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서양인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성경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조계종 사회부는 보령시에서 특정종교의 상징적 인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조형물 제작 설치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종단협은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교구본사 및 종회 종교차별종교왜곡특위, 종교평화위원회와 협력해 조형물 설치 반대 활동에 연대하겠다고 했다. 조형물 설치 사업 취소나 변경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충청지역 사찰 및 신도단체 등과 연계해 충청남도 및 보령시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에 일법 스님

‘제11차 원로회의’서 만장일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신임 원로의장에 원로회 수석부의장 일법 스님〈사진〉을 추대했다.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는 3월 2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2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원로회의를 열고 신임 원로의장에 일법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원로의장 수현 스님이 원적하면서 비구니회 회칙 제5장 27조 4항 ‘원로회의장, 원로회부의장 궐위 시 최초 회의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에 따른 조치다. 일법 스님의 임기는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2026년 5월 2일까지다.

원로의장 일법 스님은 “비구니회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전국비구니회가 ‘제19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비구니회, 청년 포교 나선다

3월 20일, 제19차 정기총회서
올해 예산 및 주요 사업 확정
선명상 · 음악회 등 역점 추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청년들에게 친숙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포교 활동에 나선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3월 20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열린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다.

비구니회는 청년 불자 및 대학생 포교를 위해 오는 7월~8월 선명상 프로그램 ‘한여름, 명상으로의 초대’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마음의 쉼을 얻고, 단단한 내면을 길러갈 수 있도록 돕는게 목표다.

또 비구니회 국제·사회부는 청년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연중 6회 ‘힐링 음악 법회’를 개최한다. 음악 법회는 악기를 연주하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비구니 군법사 스님들이 활동하는 부대를 찾아 음악회를 열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직접 구운 와플도 장병들의 간식으로 지원한다.

총회에서는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김내영 기자

제42차 한일불교대회, 6월 범어사서 열린다

3월 20일, 제45차 정기총회 개최
6월 17~19일, 새로운 50년 주제

한국과 일본 양국 불교계의 친선우호를 다지는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17일 범어사에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는 3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2569년도 제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42차 한일대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회의는 출석 31명 이임 9명 불참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해 성원됐다. 지난해 일본 정토종 대본산 증상사에서 41차 대회를 개최한 양국 불교계는 올해는 6월 17~19일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에서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 한국 범어사대회’를 개최한다. ‘한일불교교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지속가능한 교류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범어사대회에는 한국 80명, 일본 50명 등 양국 대표단 130명이 참석한다. 대회는 세계평화기원법회, 유골봉환 위령제 봉행, 학술경연회 및 공동선언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회의에 앞서 한일문화교류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양국 불교계 교류가 단순한 친선 교류를 문제를 해결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풍경소리 ‘포교게시판 교체·확대 성료 고불법회’

총 900곳에 3000개 운영 ‘성과’
목종 스님 “포교의 지평 열 때”

지하철과 철도 역사에 포교게시판을 설치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온 풍경소리가 노후된 게시판을 전면 교체하고 전국 3000개 게시판을 확대 운영하는 불사 원만 회향을 기념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사단법인 풍경소리(대표이사 목종 스님)는 3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포교게시판 교체 및 신규부착불사 성료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풍경소리 대표이사 목종 스님은 “1999년 서울지하철공사를 시작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20여 년간 2300여 개의 게시판을 운영해 왔다”며 “2022년부터는 오래돼 낡고 더러워진 게시판을 교체하고, 코레일과 협약을 통해 새롭게 개통한 철도 역사까지 600여 개의 게시판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풍경소리 포교게시판이 3000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圓 比丘尼 道原堂 萬悟 禪師 寂

불기2569년 을사년 3월 18일(음 2월 19일) 만오스님의 원적을 함께 애도해주신 사부대중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생동안 자비 보살의 행을 다하고 가신 만오스님을 추모하고 기리는 49재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함께 자리하시어 원만 회향 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좌 도원 합장

만오 선사 추모 49재 안내

- 초재 3월 23일 (음 2.24) 일요일 오전 10시
- 2재 30일 (음 3. 2) 일요일 오전 10시
- 3재 4월 6일 (음 3. 9) 일요일 오전 10시
- 4재 13일 (음 3.16) 일요일 오전 10시
- 5재 20일 (음 3.23) 일요일 오전 10시
- 6재 27일 (음 3.30) 일요일 오전 10시
- 막재 5월 3일 (음 4. 6) 토요일 오전 10시

– 회향 법문 성암 종범스님 –

※ 문의 : 055)381-9666 / 장소 : 통도사 서축암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서축암

제563회 사명대사 춘계향사

일시 : 2025년 3월 29일(토) 10시 장소 : 표충사 사당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